



마다발을 출판평론가,
책 읽어 주는 남자의 책 속으로 달리기

《책 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낸 출판평론가 김기태

출판평론가로 신문과 방송을 비롯 대중매체에서 전방위 평론활동을 하고 있는 김기태(42·세명대 미디어창작과 교수) 씨는 책을 알리는 자리라면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그가 읽는 책들은 양과 종, 어느 면에서도 꽤 좋은 집적량을 보인다. 지난 2001년 《텍스트, 커뮤니티 그리고 출판》으로 한국출판계가 직면한 문제 제기에 서평을 덧붙였던 그가 이번에 590쪽에 이르는 《책 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라는 서평집을 낸 것도 이런 전방위적 책읽기의 결과이다. 문학, 인문, 철학, 종교 등 다양한 장르의 서평목록이 300여 종 되는데 이번 책에는 211종이 소개됐다.

“2001년 3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잡지와 방송매체 등에서 소개한 순서대로 모은 서평집입니다. 한권 한권 통독하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내 독후감을 최대한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내가 읽은 책이긴 해도 누군가에게 적극 권하기엔 좀 미흡하다 싶은 책은 걸러냈습니다.”

그는 《책 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에서 나열식 책소개 대신 하나의 테마에 두 권의 책을 묶어 소개하는 형식을 선보이고 있다. 독자들의 ‘편식’을 우려한 때문인데, 이런 점에서 《책 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는 양서 선택의 가늠자 성격도 띠고 있다. 하지만 그는 줄져 목록에 또 한 권을 보탤다며 검양을 보이면서도 서평집의 도움으로 책 읽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욕심은 감추지 않았다.

“책과 친해져야 합니다. 가릴 것 없이 읽는 일이 중요하지요. 그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좋은 책과 나쁜 책을 구별하는 안목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인식과 사유의 폭을 얼마나 넓히느냐 하는 것은 독

자의 몫입니다.”

그는 1996년 제정된 한국출판평론상을 받았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라디오 방송 진행과 온·오프라인 지면을 통해 부지런히 책을 소개한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가까이 다리품을 파는 열성은 방송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먼저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의 전방위적 독서는 책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드러난다. 장르를 불문하고 하나의 주제로 책을 묶어 읽는 것은 그만의 노하우다. 앞에서 얘기했듯 이번 책 《책 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에도 책과 주제와의 연계성을 찾아 독자와 이어주는 기획이 돋보이는데 ‘감성으로 읽는 즐거움과 생각하는 즐거움’, ‘과학으로 풀어보는 세상, 그리고 포도청을 알아야 하는 이유’, ‘디지털 매체 시대의 문학’ 등 각 주제에 해당하는 장르의 책을 가려 묶은 것은 지식의 소통을 위해 여러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저자가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독자가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 권선징악이 갖는 책에선 선의 의미를 스스로 파악하는 독해력이 강한 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독자들의 무비판적 수용도 비판적 책임기에 방해가 되어 염려됩니다. 텔레비전에 소개되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현실 아닙니까? 하지만 요즘, 학생들의 책 고르는 안목이 높아진 것을 보면 뿌듯합니다.”

책읽기와 책 권하기가 직업이다시피한 그에게 책값으로 얼마나 쓰는지 물었더니 매달 5,60만 원 가량 쓴단다. 불경기에, 만만찮은 금액이다.

“서점에 나가서 직접 보고 책을 구입합니다. 집에는 주로 아이들이 읽는 책이 있고, 혼자 쓰기 조금 널찍한 연구실엔 만오천 권 가량의 책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과연 못으로도 뚫을 수 없는 ‘책 벽’ 속에 살고 있는 그는 한때 시인이 되기를 희망했다. 틈틈이 습작하고 투고한 원고만 해도 노트 3권 분량이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문학적 갈등이 심했던 1980년대에 ‘시대를 빙자하여 미래를 노래하는 것뿐인 시인의 꿈을 미련 없이 접고 ‘쓰는 일’ 보다는 ‘만드는 일’ 을 택했다. 그러나 만드는 일 역시 힘겨웠다. 출판편집자로 나섰지만 책 제작과 관련한 질문에 선선히 답해 주는 사람이 드물었다. 그럴수록 하나하나 캐들어간 그는 결국 여러 출판사 편집장을 거쳐 삼진기획 이사까지 역임했다. 그의 독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책을 보여주며 표지의 재질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결만 훤한 애매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공부를 해서 나만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편집자의 입장에서 수많은 책을 접하다보니 많이 팔리는 책들만을 생산하려는 출판계의 부조리하고 상업성 짙은 측면도 눈에 밟혔습니다.”

사실 출판학자로서 그의 전공은 저작권이다. 그는 요즘도 하루에 두세 권씩 저작권 침해, 보호 등과 관련한 상담을 요청받고 있다.

“제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2002년 출판전공자로서는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게 된 것도 제게 많은 책을 보내주셨던 출판업에 종사하는 분들 덕이지

요. 앞으로도 이러한 봉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는 해야 할 일이 많다. 텍스트 수준이 높아 평론가들의 구미를 자극하는 책보다는, 독자들에게 읽히기 쉽고 독자들이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긴다. 더불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출판정책이나 상황 등을 진단하여 출판비평지를 창간할 계획도 갖고 있다.

책 속에 묻혀 바쁜 날을 보내지만 그는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서점에 가는 일을 잊지 않는다. 단순히 책을 골라 쥐어주는 것이 아닌, 아이들에게 직접 보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 좋은 책을 선택하게 한다. ‘고르는 작업’ 을 통해 책읽기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두 아이 모두 독서일기를 쓰고 있는데, 책으로 묶어주고 싶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우선 아이들이 좋은 책을 읽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좋은 책을 읽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함께 책을 읽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부모의 책과 자신의 책을 비교하게 만들어야 하구요. 요즘에는 가정에 호화가구는 있어도 변변한 책장 하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수선하고 복잡해서 책 읽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서점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이 독서를 소홀히 하게 하는 요인이지요.”

시간이 나면 여행에 나서거나 운동을 한다는 그는 스스로를 ‘마라톤 마니아’ 라고 부른다. 5월에는 마라톤 코스를 달려보겠다고 버리고 있는 그는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마라토너와 닮은 듯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책읽기의 종착점은 없는 듯하다. **▶▶**

취재 홍이현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책 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
김기태 지음 | 박이정 | 590쪽 | 값 17,000원